

# 일본 근세문학에 나타난 온천문화\*

박 찬 기\*\*

(e-mail : parkchan@mokpo.ac.kr)

---

## 目 次

---

1. 들어가며
  2. 온천기행에 나타난 온천문화
    - 2-1. 탕치를 위한 온천여행
    - 2-2. 아타미 온천
  3. 『上州草津温泉道中続膝栗毛』에 나타난 온천문화
  4. 센류, 교카, 단카에 나타난 온천문화
    - 4-1. 에도 센류에 나타난 온천문화
    - 4-2. 교카· 단카에 나타난 온천문화
  5. 맺음말
- 

## 1. 들어가며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한 정치의 안정과 도로의 정비로 인하여 그 전보다는 비교적 활발하게 여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도카이도(東海道), 나카센도(中仙道), 고슈카이도(甲州街道), 닛코카이도(日光街道), 오슈카이도(奥州街道)를 중심으로 신사참배나 탕치를 위한 또는 탕치와 신사참배를 겸한 여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탕치를 위한 온천 여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거주 지역 내에서의 탕치 여행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게 되었다.

또 탕치의 기간도 일주일을 주기로 하는 장기의 여행이었으므로 온천장에서

---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의 숙식비, 생활필수품의 소지 등 여행을 위한 준비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세 이후 무사정권에 의한 봉건체제 아래에서 번 직할로 관리 경영되어온 각 지역의 온천은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어 정비 발전되어 갔다. 이것에 따라 온천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온천에 관한 지식 및 매뉴얼이 정비되는 소위 〈온천문화〉가 나타나게 된다. 대중의 기호에 맞는 온천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온천반즈케(番付), 니시키에(錦絵) 판화 등이 있고 문예의 형태로 성립된 온천기행, 셴류(川柳), 교카(狂歌) 등도 에도시대의 온천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한 에도시대의 온천문화에 대한 연구는 마쓰다 다다노리(松田忠徳), 아다치 기요하루(安達清治), 이다사카 요코(板坂耀子)<sup>1)</sup>씨의 저서, 논고, 편지가 있어, 온천문화의 다양한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해설서 내지는 온천학의 한 분야를 설명하는 것으로, 기행문학, 셴류, 교카 등을 매체로 한 문학연구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도시대에 성립된 일본 근세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온천문화의 다양한 면을 조사 고찰하고, 온천이 일본인의 생활문화에 어떻게 정착해 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 2. 온천기행에 나타난 온천문화

### 2-1. 탕치를 위한 온천여행

모토오리 오히라(本居大平)의 『아리마(有馬)일기』(1782년)에는 아리마에서의 매일 매일의 생활을 세심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중 온천기행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모토오리도 자신의 신병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온천여행의 출발을 시작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이가 들어 최근 몇 년간 마음이 병든 자가 있었다.(생략) 생업에 종사하는 일도 귀찮고, 즐기는 학문도 게으름을 피우게 되어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이나 드러누워 괴로워하여, 이곳저곳의 의사로부터 뜬의 처방을 받으며 지낸

1) 松田忠徳 『江戸の温泉学』(新潮選書,2007),  
安達清治 「『旅行用心集』に見る“江戸時代”の旅人と温泉の楽しみ方」(『大阪観光大学紀要』8号, 2008.)  
板坂耀子 『江戸温泉紀行』(平凡社, 1987.)

것이 수년이 되었다. 이 병세가 두 달에 한 번 내지는 세 달에 두 번 정도 반드시 나타나는데 올해는 뜬의 효험이 있었던지 약간 뜨음하던 것이 이윽고 나타나 근심스럽고 초조하며 우울하여 괴로워하던 차에 시오이노 신고로라는 자가 탕치여행을 떠나자하므로 잘됐다 생각하여 함께 떠났다.<sup>2)</sup>

마음의 근심과 우울증 무기력증의 치료를 위한 아리마 온천 탕치 여행을 시오이노 신고로라는 자와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또 오네 쓰치나리(大根土成)의 『곶케아리마기행(滑稽有馬紀行)』(1827年)에는 에라이야 다로스케(惠来屋太郎助)와 사이로쿠(才六)가 아리마 탕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사 「이것 교토 오조 근방에 사는 에라이야 다로스케라는 자는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셋슈 아리마의 온천은 만병의 치유에 효험이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이렇다 할 병은 없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병이 있어 입탕을 위한 여행을 하려고 한다. 또 이곳에 관동지방에서 온 백수 사이로쿠라는 자가 있다. 이 자를 동반하고 아리마 탕치 여행을 목표로 한다.<sup>3)</sup>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든 몸의 치료를 위하여 아리마 온천 탕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다. 滑稽本の 체재를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에라이야 다로스케와 사이로쿠 콤비의 여행지에서의 골계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복수의 여행자 콤비에 의하여 골계담이 생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행 만담의 소재로 온천장이 이용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서 하라 마사오키(原正興)의 『다마쿠시게후다쓰이테유미치노키(玉匣両温泉路記)』는 아타미(熱海)와 하코네(箱根) 온천을 돌아보는 장편의 기행문이다. 이 작품의 탕치 여행 출발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 年ごろにこゝちわづら(煩)ひける人ありけり。(省略)世のなりはひ(生業)とてつとむるわざなんども物づく、このみでする学もんなんどもおこた(怠)りがちにて、七日ばかり、もしは十日ばかり、いたづらにうちふ(打伏)しわづらひければ、そこかしこくす師などにとひきゝて、やいと[灸]ゝいふことなんどしつゝ、としごろになりぬ。此やまひ、ふた月に一たび、三つきに二たびなど、かならずおこりけるを、今年はおこたりぎまにてやゝ間遠におこりつゝ、よきさまにおぼゆるも、かのやいととしるしにやといとうれしけれど、猶おこたりは(果)てゞをりをりは例の物うさ出きつゝ、われながらももどかしうわづらはしき物になん思ひわたりけるを、このたび塩井新五郎といふ人、かしくに物すとてさきひければ、いとよきことゝ思ひて、もろともに出たつなりけり。

本居大平(1782)『有馬日記』(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p 59.

3) 詞 「是は都五条辺りに住居する惠来屋太郎助とは我事なり。扱も撰州有馬の温泉は諸病を治するよし。承り及び候間此身は然るべき病のあらず候へども。大酒と申一病により。入湯に参らばやと存候。亦ここに東国方より出たる食客才六と申者御座候間。此者を召連、有馬入湯にこころざし候。大根土成(1827)『滑稽有馬紀行』(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 p8.

나는 고혈압으로 머리가 아프고 안질환을 경험한지 오래되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 병에는 온천욕을 하고 폭포에 머리를 맞추면 곧 나올 것이다. 이즈국에 있는 가모군 아타미 온천, 사가미국 하코네 산의 일곱 온천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 중 미야노 시타라는 온천은 고혈압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여행 준비를 하였지만 다마쿠시계 두 곳에서 온천욕을 하고 다년간의 피로움을 잊고 싶어서 3,4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저것 형편이 좋지 않아 중단하고 말았다. 올해도 매화가 피는 음력 정월 그믐부터 발병하여 꽃이 만발하는 따듯한 봄날에도 안방 신세를 지고 있다가 어느새 나뭇가지에 새싹이 나고 산새 우짖는 하늘에 자극받아 당치 여행 준비를 하고 뜻이 맞는 친구 가미무라 미쓰오키, 후지가와 사다노시에게 제안을 하니 흔쾌히 수락하였다.<sup>4)</sup>

작자는 고혈압의 당치를 위해 3,4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온천 여행을 동료 두 명과 함께 떠난다. 그리고 당치는 3회<sup>5)</sup>로 정하고 주군으로부터 한 달간의 휴가를 얻어 여행을 떠난다.

이외에도 잇보켄 겐에(一方軒玄英)에 의한 『유노쿠라(湯倉)온천기행』(1841)도 안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당치 여행이고, 사카모토 에쇼(坂本栄昌)에 의한 『다비노구치즈사미(旅のくちずさみ)』(1795)도 가슴과 머리의 통증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온천기행의 대부분이 작자 자신의 신병 상태의 술회를 시작으로 기술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즉 온천기행의 원점은 당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온천 기행은 온천장으로의 공간 이동을 통한 복수의 여행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엿볼 수 있다.

4) おのれ気のぼる病ありて、頭いたみ眼に煩ふこと年久し。ある人、「その病には、温泉に浴し、滝に頭うたするならば、たちまちいゆべし。伊豆国なる水鳥の加茂郡熱海の温泉、相模国箱根山の七処の温泉は世人のしる処なり。そが中に宮の下てふ温泉は、わきて気のぼる病にいさをし有」といへば、武蔵鎧かけまたぎたれども、玉匣ふた処にゆあみして、年ごろのくるしみを忘れまほしく、三とせ四とせ前に思ひ立しに、かにかくに障ること有りてやみぬ。ことしも梅咲し睦月の末のころより例の病発り、花ぐわし桜咲のどかなる日もこもりがちにて、いつしか梢も若葉となり、山時鳥名のり出べき空のけしきに催ふされ、草枕結はんとおもひ立、たま(魂)あへる友神村光興ぬし、藤川貞ぬしにものするに、ふたりのぬし手をうちて、(以下略)

原正興(1839)『玉匣両温泉路記』(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p129.

5) 1회는 7일을 주기로 하고 있으므로 3회 21일간의 온천욕이다. 게다가 왕복의 여정을 합쳐 30일 간의 휴가를 얻은 장기간의 온천여행이 계획된다. 당치의 주기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줄고 「에도시대의 기행문학과 온천문화」(『일본문화학보』 제47집, 2010, 한국일본문화학회편.)pp143-146. 참조 바람.

## 2-2. 아타미 온천

에도 후기 아리마 온천<sup>6)</sup>과 더불어 번성했던 온천으로 아타미(熱海)를 들 수 있다. 하라 마사오키(原正興)는 『다마쿠시게후다쓰이데유미치노키(玉匣兩温泉路記)』에서 아타미 온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탕은 사방 7척 정도이다. 다메유라는 것은 깊이 9척에 사방 3척의 상자이다. 탕 안에 칸을 막아 하나는 5척에 4척의 상자이다. 다메유는 칸막이 아래를 통과하여 하나가 된다. 용출하는 곳에서 숙소까지 150미터의 거리이다. 수로를 통하여 끌어들인다.(생략)

온천수를 떠서 사용해보니 눈과 입이 짜서 맵다.(생략)

온천수의 용출은 낮에 세 번, 밤에 세 번이다. 오전 6시, 10시, 오후 2시, 6시, 10시, 오전 2시로 정해져 있다. 45,6일 째에 오유라고 해서 종일 용출하고 다음 날은 용출이 없다. 용출하는 곳을 가보니 사방 10칸 정도의 울타리가 쳐져 있고 입구에는 나무로 만든 문이 있다. 안에는 찻잔 정도의 청석이 일면에 깔려있다. 용출하는 입구에는 큰 돌들이 산재한다. 그 사이로 용출한다. 7,8척 앞에 큰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이루고 있다. 그 돌은 구운 돌과 같이 붉고 손상된 것도 있다.<sup>7)</sup>

이 작품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성립된 야스미 로안(八隅蘆菴)의 『료코요진슈(旅行用心集)』(1810)에는 아타미 온천에서의 숙박과 온천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타미 온천은 극한 열탕으로 밤낮으로 6번 용출한다. 염분이 많은 짠맛으로 투명함이 거울과 같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해변이어서 바닷물과 섞이는

6) 아리마(有馬) 온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줄고 「에도시대의 기행문학과 온천문화」(『일본문화학보』 제47집, 2010, 한국일본문화학회편.)pp137-155.) 참조 바람.

7) ゆは七尺四方の箱にたゝへたり。溜湯と云は、九尺に三尺の箱也。湯場の中を仕切て、ひとつは五尺に四尺の箱也。溜湯は仕切の下を通ひてひとつ也。涌出るもとより、この宿まで、五十杖も有べし。かけ樋にて引也。水もかけひにて篆先へ引、桶にたゝへたれば、清くいさぎよし。(省略)  
 め(目)口にしみて塩からし。(省略)湯涌出るは、昼みたび、夜みたび也。卯・巳・未・酉・亥・丑(午前六時・十時、午後二時・六時・十時、午前二時)、このときを違ふことなし。四十五六日目に大湯と云て、終日涌て、翌日は終日わかずと云。湯もとに行て見るに、十間四方向に柵結て、入口に木戸有。内は茶碗程の青石一面に敷たり。湯出る口には大石ども並べたり。其間より涌出る。七八尺前に大石積て垣をなせり。其石、焼石の如く色赤く、かけ損じたるもあり。  
 주 3과 같은 책.p147-151.

까닭에 그 느낌이 부드럽고 맹렬하지 않다. 여러 병에 효험이 있다. 관동 제일의 명탕이다. 온천장은 수 십 채, 각각 관을 통하여 온천수를 끌어들인다. (생략) 아타미 온천의 효능은 중풍, 가슴 복부 통증, 빈혈, 가래, 눈병, 요통, 발 저림, 화상으로 인한 피부 수축 (이하 생략) 단 종기가 있는 사람은 삼가야 한다. 치통에는 온천수를 수차례 입안에 머금은 것이 좋다.<sup>8)</sup>

위 두 문헌을 통하여 아타미 온천의 용출 회수, 성분, 효능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에도시대에 아타미가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마쓰다 다다노리(松田忠徳)씨에 의하면, 천하를 손에 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아타미 선호와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sup>9)</sup>고 전해지고 있다.

1830년에 성립된 산토 교잔(山東京山)의 『아타미온센즈이(熱海温泉図彙)』에는 온천수의 분출 장면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탕의 용출은 밤낮으로 세 번씩, 긴 시간 용출한다. 6시, 4시, 8시 연중 시간이 바뀌는 일이 없다. 40일 또는 50일째에는 하루 종일 용출하여 이것을 나가와키(長湧)라 한다. 다음 날은 반드시 용출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썸이라 한다. 그 다음 날의 용출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후의 용출은 전과 같다. 용출의 모습은 전골에 물을 끓이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계의 눈과 같이 끓다가 점차로 끓어올라 용출하며 이윽고 용이 끓는 물을 토해내듯이 두 칸 남짓 떨어진 큰 돌 쪽으로 뿜어내는 모양이 울림은 천둥과 같고 안무는 구름과 같이 하늘로 치솟아 몸의 털이 거꾸로 설정도이다. 이 온천수를 사망의 숙소로 끌어 욕조에 받아 식혀서 사용한다. 까닭에 이 지역 말로는 대탕이라 부른다.<sup>10)</sup>

8) 熱海の温泉ハ大熱湯にして、昼夜に六度涌出る也。味しほ鹹しほくして、其潔白なること鏡かがみの如し。然共此地海辺にて潮うしほを交る故に、其氣柔なにして猛烈めいれんならず。諸病しよびやうに効あり。関東第一の名湯也。湯窟たうくつ數十軒、各種しよしゆヲ以テ大湯たいたうを引也。(省略) ○ 熱海の効ハ中風ちゆうふう、疝癰せんよう、眩暈せんうん、痰飲たんぎん、眼病がんびやう、頭痛たうづう、腰痛りゆうう、脚氣きゃくき、筋攣しんれん(以下略)但シ腫氣しゆきあるものハ忌いべし。齒痛しちうにハ、湯たうを口中くちゆうへいくたびも捨てよ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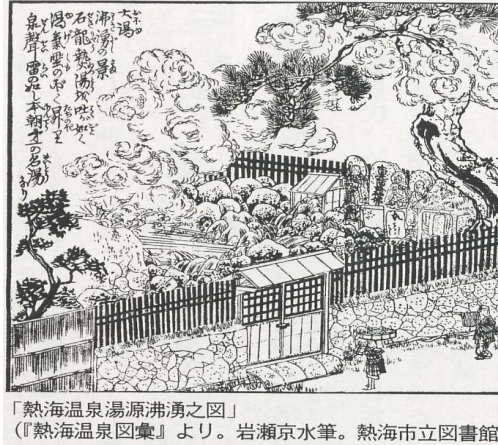
八隅蘆菴『旅行用心集』(1810)(『生活の古典双書』八坂書房、1972.) p 86.

9) 松田忠徳(2007)『江戸の温泉学』,新潮選書.pp21-22 참조.

10) 「湯たうの沸わくこと昼夜三度、長ながの時に湧わき出る。六むツ四よツ八はツ時、年中時なちゆうじを違ちがふ事なし、四十日又は五十日目に終日湧潮わくこと、是こゝを長湧ながわきといふ、次の日つぎのひはかならず湧事わくことなし、是こゝを休みやすみといふ、その次の日つぎのひ沸事わくこと、時ときをさだめず、一二日いちにちをへてわく事前わきかへるの如し、湯たうの湧形勢わくありさまは鼎かまに水みづを煮にるがごとく、はじめは蟹かにの眼めのごとく湧わいで次第しだいにわきたち沸湯わいてにいたりては石竜熱湯いそりゆうねつたうを吐はかごとく二間余にまあまりもへだたる大石おおいしへ熱湯ねつたうを吐はき

아타미의 간헐천은 백도에 가까운 열탕으로 용출할 때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사망 주위를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그림1



아타미 온천 열탕에 관한 기원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 이쿠와 노 오미가시마(的臣蚊島)·호베노 기미(穗瓮君)의 시체를 이즈 바다에 묻었더니, 이 때 해저에서 온천수가 용출하여 많은 어패류가 죽었다”<sup>11)</sup>고 전해지고 있다. 또 이 열탕으로 인해 죽은 어패류를 불쌍히 여기고, 육지에 사는 중생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코네(箱根)산의 개조 만간쇼닌(万卷上人)이 비책을 사용하여 온천수맥을 해저에서 산중턱으로 옮겼다는 설화도 전해지고 있어 아타미 열탕의 당치의 영험함을 전하고 있다.

### 3. 『上州草津温泉道中続膝栗毛』에 나타난 온천문화

깃펜샤 잇구(十返舎一九)에 의한 『도카이도추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栗毛)』는 1802년 간행된 이후 에도 후기의 여행 붐(탕치여행, 寺社순례 등)도 일조하여 베스트 셀러가 되어 속편을 간행하기에 이른다. 『조슈쿠사쓰온센도츠후조쿠히자쿠리게(上州草津温泉道中続膝栗毛)』도 그 중 하나로 이세(伊勢) 신궁에서

けるありさま響は雷のごとく湯気は雲のごとく天に上昇見るに身の毛もよだつばかり也、此の湯を四方の客舎に引き湯船にたくはへ冷して浴せしむ、ゆゑに里言に大湯と唱ふ」  
 松田忠徳(2007)『江戸の温泉学』,新潮選書, p22.  
 11) 주10과 같은 책 pp22-24 참조.

곤삐라(金比羅) 궁을 참배하고 오사카·교토를 지나는 여행로에서 야지로베(弥次郎兵衛, 이하 야지라 약칭함), 기다하치(喜多人, 이하 기다라 약칭함)라는 두 사람의 눈을 통하여 각지의 견문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젠코지(善光寺) 경내를 두루 돌아본 후 숙소로 돌아온 날 밤, 기다가 숙소의 딸과 단골손님의 신주(사랑으로 인한 남녀의 동반자살 소동) 상담에 말려들어 의심을 받는 등의 곡절 끝에 다음 날 쿠사츠 온천으로 출발한다. 잇쿠는 쿠사츠 온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고즈케국 쿠사츠는 옛날 養老(717-723)년 중 교키(行基) 보살이 발견한 온천이라 한다. 실로 다른 지역과 비교될 수 없는 영험한 온천으로 모든 병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원근 각지의 여행객이 이곳으로 몰린다. 온천 숙소의 번창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중에도 유모토 야스베, 구로이와 추에몬 등의 숙소는 특히 화려하여 풍류객이 끊이지 않는다.(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sup>12)</sup>

교키에 의한 온천 발견 전설이 기술되고 이어서 온천이 탕치에 효험이 있으며 원근 각지의 풍류객이 많이 찾아 온천 숙소가 번창하고 있다고 기술된다.

또 사카모토 예쇼(坂本栄昌)에 의한 온천기행 『다비노구치즈사미(旅のくちずさみ)』에는 쿠사츠 온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노천탕이 많은 중에도 이 탕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효험도 뛰어나다. 우선 약사(藥師)탕 아래 탕을 고자노유(御座のゆ)라 한다. 옛날 우장군 요리토모 궁이 입욕한 것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열 칸 정도 아래에 있는 탕을 와타노유(綿のゆ)라 한다. 이것은 약간 뜨거운 정도로 부드러운 것에서 유래한다. 이 탕의 앞에 바위 낮은 곳이 있다. 폭이 육 척 정도이고 길이가 두 칸 정도 깊이 두 척 남짓, 이 용출하는 탕을 가케노유(脚氣のゆ)라 한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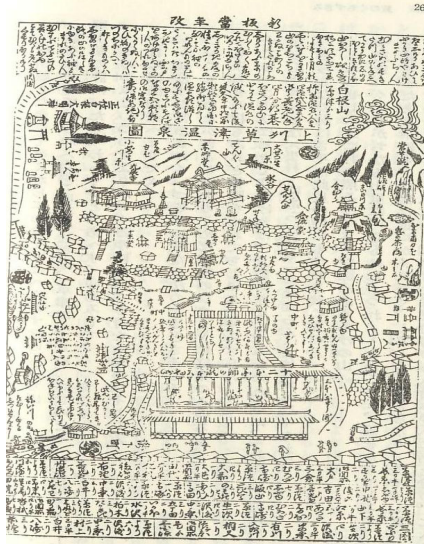
여기서 서쪽으로 열 칸 정도 떨어져 용출하는 탕을 열탕이라 한다. 와다노유의 아래에서 서쪽으로 폭 열 칸 정도 북쪽으로 서른 칸 남짓 목책을 두른 곳에서 용출하는 탕을 다키노유(滝のゆ)라 한다. 이 아래 한 장(丈) 정도 낮은 바위에 폭 세 칸 정도 길이 열 칸 정도 파진 욕조에 폭포탕이 떨어진다. 동쪽

12) 上毛かうづげ의国草津やうらうは、むかしむかし養老年中あまね、行基ぎやうきぼさつのひらき給ふ温泉とかや。真まことに海内無双かいだいむさうの靈湯れいたうにして、諸病しよびょうに験しるしある事、普あまねく人のしるところなれば、遠近えんきんの旅客りやくかくここに入つどひて、宿湯しゆくたうの繁盛ひかたえいふばかりなく、中なかににも湯本安兵衛ゆもとやすべゑ、黒岩忠右衛門くろいわただゑもんなど、ことことに家居花麗いへるくわれいを尽し、風流ふうりゆうの貴客きかく絶ず。十返舎一九(1802)『上州草津温泉道中統膝栗毛』(大橋進一『十返舎一九全集』第1巻、博文館、1930.) P691

끝을 텐구(天狗)폭포라 한다. (중략)

온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천삼백 명 남짓이라 한다. 집수는 삼백 채 정도로 보인다. 이 마을의 곳곳에 갈대로 지붕을 이은 초가가 백 채 남짓이다. 노천탕을 마을 안에 둘러싸고 이층 건물이 늘어서 있다. 지붕은 나무판자로 이었으며 온천 숙소는 칠십 채이다.<sup>13)</sup>

그림2



위의 인용문과 삽화를 통하여 쿠사쓰 온천의 번성함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온천 반즈케(番付) 『쇼코쿠온센코노카가미(諸国温泉功能鑑)<sup>쇼코쿠온센코노카가미</sup>』는 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평판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당시의 온천 반즈케에는 오제키(大関)가 가장 상위로 동쪽의 오제키는 조슈 구사쓰(上州草津), 세키와키(関脇)는 야슈 나스(野州那須), 고무스비(小結)는 신슈 스와(信州諏訪)이고, 서쪽의 오제키는 셋슈 아리마(摂州有馬), 세키와키, 고무스비에 각각 단슈 기노사키(但州城崎), 요슈 도고(予州道後)가 랭크되었다. <sup>14)</sup> 동쪽의 오제키 쿠사쓰 온천에서는 탕치 기간 중 자취를 하며 입욕을 하므로 취사 도구도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부식품 매매도 이루어진다.<sup>15)</sup>

13)坂本栄昌(1795)『旅のくちざさみ』(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pp261-264

14) 에도시대에는 오제키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스모에서도 명치 이후에 요코즈나가 나타난다. 근대 이후 동쪽의 요코즈나는 아타미, 서쪽의 요코즈나는 벳푸가 랭크된다.

木暮金太夫編(2003)『錦絵にみる日本の温泉』国書刊行会. 図77. 図81 참조.

15) 마쓰다 다다노리(松田忠徳)씨에 의하면, “당시의 탕치 체제 방법은 사치스러워서, 지방

또 『조슈쿠사쓰온센도츄조쿠히자쿠리게』에 등장하는 야지, 기다 두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욕조의 모습, 온천을 찾은 여인의 벗은 몸을 훑쳐보다가 들켜 발생하는 소동 등을 통하여 에도시대 쿠사쓰 온천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야지 기다 두 사람이 온천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있어 담소를 나누기도 하도 콧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 중 한 남자가 큰소리로 여인의 벗은 몸을 훑쳐보다가 들켜 망신당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야! 세상에는 멍청한 녀석도 다 있지 뭐야. 어떤 여인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에 들어가 구멍으로 엿보고 즐기던 녀석이 있었는데 그 때 마침 기가센 여인에게 걸려서 큰 일이 났지 뭐야. 그 남자를 잡아 두들겨 패 혼썰이 나서<sup>16)</sup>

그림3



『上州草津温泉道中続膝栗毛』

라고, 흥미진진하게 말하자 같이 듣고 있던 사람이 기다를 알아보고 작은 소리로 “이봐 조용히 해, 저기 엿보던 자가 저기에”라 알려주니 갑자기 주위가 조

영주나 그 가족, 혹은 부유한 상인 들은 요리사를 동반하고 있다. 또 지역의 식모를 고용하여 세끼 식사를 해결하는 자도 많았다. 물론 대부분의 탕치객은 온천 숙소에서 자취 설비를 빌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松田忠徳(2007) 『江戸の温泉学』 新潮社,p38 참조.

- 16) 「コレ十兵衛さん。せかいたはけなやつもあるものだ。わしらが宿でさつき喧嘩があつたが、イヤはや、はらすちをよつたことさ。なにが女の雪陣へいくたびごとに、その隣のせつちんへいつたは、ふしあなからどこやらを覗いてたのしむやつがあつて、あげくのはてに気のつよい女めが、そのをとこをひつつかまへて、イヤもぶつたほどにへ目をつゝきつぶされ、足腰がぬけて、  
주 32와 같은 책.p 6 9 9 .

용해진다. 모두 힐끗힐끗 쳐다보며 소근 거린다. 시선을 의식한 기다는 견딜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간다. 결국 옆방 노인의 중재에 의하여 엿보기 사건의 전말은 진정 국면을 맞이하는 형태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 등 당시의 온천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야쓰이와 마도카(八岩まどか)에 의하면<sup>17)</sup> 에도시대 쿠사쓰 온천의 온천장은 이발소가 다섯 곳, 활을 쏘는 양궁장이 열 곳, 술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집이 일곱 여덟 곳, 그 외에 서적 대출이나 탕치객이 필요로 하는 도구를 빌려주는 가게 등도 있었다 한다. 찻집이나 양궁장<sup>18)</sup>은 명칭은 다르나 유곽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그야말로 온천장은 하나의 커다란 환락가로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천장은 탕치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유흥의 공간, 오락의 공간, 문화 전수의 공간으로도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셴류, 교카·단카에 나타난 온천문화

에도시대의 온천여행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또 서민들에 의한 온천 탕치는 어떻게 행하여졌는가를 에도시대에 나타난 17글자의 문예 형태인 셴류(川柳) 및 교카(狂歌)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4-1. 에도 셴류에 나타난 온천문화

셴류란 에도시대 가라이 셴류(柄井川柳)에 의해서 편집된 5·7·5 17자로 지어진 단시 문예이다. 작자는 주로 서민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많고 그 중 뛰어난 것을 가라이 셴류가 선정하여 「셴류야나기다루(川柳柳多留)」라 칭하고 편집하였다. 셴류의 대상은 생활, 사회, 역사 등 다양하며 풍자, 비평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 중에는 탕치의 모습이나, 온천과 관련된 작품이 다수 남아 있다. 따라서 서민들에 의하여 지어진 셴류를 통하여 에도 서민의 온천이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쿠사쓰 온천 아무래도 부인은 납득이 안가 (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sup>19)</sup>

17) 八岩まどか(2002) 『温泉と日本人』 青弓社.p88.

18) 에도시대에 있어서 양궁(楊弓)은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유희의 하나였다.

이미 언급한 듯이,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걸쳐 유행한 온천 반즈케(番付)  
しよ こく おん せん こう のふかがみ  
『쇼코쿠온센코노카가미(諸国温泉功能鑑)』는 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평판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중요시되었다. 당시의 온천 반즈케에는 오제키(大関)가 가장 상위로 동쪽의 오제키는 조슈 구사쓰(上州草津)가 랭크되었다. 20) 게다가 중기, 성병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으로 남편이 탕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므로 부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장모에게도 쿠사쓰 가는 것은 비밀로 하고21)

쿠사쓰 온천은 성병 치유에 효험이 있는 온천이다. 그곳으로 탕치 여행을 가는 것이므로 장모에게도 비밀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바람이 있어 처는 먼 곳의 온천에 간다22)

온천의 효능 중 또 하나는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바람이다.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거리가 먼 온천으로 탕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읊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기후현에 고다카라(子宝) 온천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탕치 여행 후 실력도 조금은 향상된 듯하다.23)

에도시대 탕치의 기본은 일주일 단위였으므로 일반적으로는 2주 내지는 3주 길게는 한 달 또는 그 이상도 걸리는 장기 체재였다. 체재 중에는 장기, 바둑 등 취미 생활 등으로 무료함을 달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온천에서의 체재는 취미 생활의 실력 향상에도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되도록 원래 센류의 운수율 5,7,5에 맞춰 번역하려고 노력했다.

草津の湯とかく女房がふのみこみ.

山沢英雄 (1995) (『誹風柳多留』一,岩波文庫)p60.

20) 에도시대에는 오제키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스모에서도 명치 이후에 요코즈나가 나타난다. 근대 이후 동쪽의 요코즈나는 아타미, 서쪽의 요코즈나는 벳푸가 랭크된다.

木暮金太夫編『錦絵にみる日本の温泉』国書刊行会、2003. 図77. 図81 참조.

21) しゅうとへも草津へいくは秘し隠し.

安達清治「『旅行用心集』に見る“江戸時代”の旅人と温泉の楽しみ方」(『大阪観光大学紀要』8号、2008.) p57.

22) ほしがって嫁は遠くの湯へ入り. 주 14와 같은 책.p57.

23) 湯治から少しはよみつよくなり. 山沢英雄 (1995) (『誹風柳多留』一,岩波文庫)p181.

○ 탕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악취미가 늘어나<sup>24)</sup>

탕치를 위한 온천장에서의 체재 중에는 다양한 문화 전수의 장에 입회하여 예능을 익힌 후 돌아와 어정쩡한 예능이 많이 늘어났음을 읊고 있다.

○ 온천장에서 아무것도 몰라 유감이다 <sup>25)</sup>

○ 온천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유감이다<sup>26)</sup>

이 셴류도 탕치 여행은 장기 체재를 요하므로 취미가 없이 보내는 무료함을 애석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 두 집정도 탕치 여행 후 늘은 듯하다<sup>27)</sup>

장기나 바둑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장기 체류 중 연습을 하여 돌아갈 쯤에는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읊은 셴류이다.

○ 샤미센 연주 대신에 베개를 슬쩍 내민다.<sup>28)</sup>

체재 중 유랑예능인을 불러 장기 체재의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 그런데 샤미센 연주의 여인이 음악 연주 대신 슬며시 베개를 내민 것이다. 온천장에는 유나뿐만 아니라 유랑예능인까지도 드나들어 체재하는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매춘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sup>29)</sup>

○ 다음 탕치는 “언제 올 거야 기다릴 테니” 가루이자<sup>30)</sup>

24) 湯治から帰つてわるひげいがふえ.

山沢英雄 (1986) (『誹風柳多留拾遺』上岩波文庫)p85.

25) 湯治場で何にも知らぬざんねんさ. 山沢英雄 (1995) (『誹風柳多留』三,岩波文庫)p212.

26) 湯治場で何にもできない残念さ. 安達清治 「『旅行用心集』に見る“江戸時代”の旅人と温泉の楽しみ方」 (『大阪観光大学紀要』8号、2008.) p57.

27) 一ち式もく湯治帰りハつよく成. 山沢英雄 (1995) (『誹風柳多留』一,岩波文庫)p126.

28) 三味線のかわりに枕そつと出し. 安達清治 「『旅行用心集』に見る“江戸時代”の旅人と温泉の楽しみ方」 (『大阪観光大学紀要』8号、2008.) p58.

29) 유나(湯女)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는 (줄고 「에도시대의 기행문학과 온천문화」 (『일본문화학보』 제47집, 2010, 한국일본문화학회편.)pp146-151.) 참조 바람.

30) むかい湯に来たりや寄りなどかるい沢.

山沢英雄 (1995) (『誹風柳多留』一,岩波文庫)p127.

귀향길 나카센도(仲仙道) 가루이자와 근교에서 유나인지 풍속녀가 “또 언제 올 거야 기다릴 테니”하며 희롱한다. 온천장에서 신세를 진 여인일까?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한 무리들<sup>31)</sup>

○돌아가는 길에 아카기 칼을 백문에 참관<sup>32)</sup>

하코네 온천 탕치 후 돌아가는 길에 하코네 곤겐(箱根権現)을 참배하여 구도 스케츠네(工藤祐径)가 하코네 곤겐으로부터 받았다는 아카기 칼의 명검을 백문을 주고 관람했다는 내용의 센류이다.

○돌아가는 길 보지도 않고 곰보 논란이 해결됐다.<sup>33)</sup>

탕치 후의 모습은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이므로 피부가 엷었는지 어쩐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센류를 통해서 본 에도시대 서민의 온천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항목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탕치의 기본은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병의 치료, 불임 여인의 임신촉진 등이다.

둘째로 온천 탕치 주기는 7일을 최소의 기간으로 하여 일반적으로는 2,3주 길게는 3,4주를 넘는 장기간에 걸친 체류기간을 필요로 했으므로 그 간 온천장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바둑, 장기, 독서 등)과 유나, 유랑예능인 등에 의한 유흥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온천 여행은 탕치 후 신사나 절을 순례하는 여행이기도 하고 또는 관음 순례 후 온천 탕치를 하는 여행이기도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온천장에서는 유나의 존재, 유랑예능인 등의 출입이 자유로워 남성의 성적 욕구를 갈망하는 매춘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4-2. 교카·단카에 나타난 온천문화

교카(狂歌)란 해학, 골계를 노래한 비속한 단가. 특히 에도시대 초기, 중기에

31) 湯かへりを見すまして居る一トさかり. 주 23과 같은 책 p110.

32) 湯もどりに赤木作りを百でぬき. 주 23과 같은 책 p123.

33) 湯婦りを見たであばたのろんがやみ. 주 23과 같은 책 p155.

유행하였으며 속어를 사용한 노래를 말한다. 온천기행 작품에도 다수의 교카·단카(5,7,5,7,7의 31자로 이루어짐)가 읊어지고 있다.

- 아리마의 염천에 초승달이 비친 모습을 보니 불편한 몸도 치유되는 칠일 칠일에<sup>34)</sup>

온천장에서의 탕치 주기는 7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듭되는 칠일 주기의 온천욕에 의해서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병이라면 아리마 온천에서의 탕치라도,<sup>35)</sup>

온천이 탕치의 효과도 있지만 심적인 위안의 공간으로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말도 아닌데 손님이 타기를 원하는 무스메유나 복을 치며 춤을 추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서  
츠치나리(土成)<sup>36)</sup>

에도시대 온천장에는 한 집에 두 명의 유나가 고용되었다. 유나는 탕치 손님의 탕치 주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온천욕의 시중을 들기도 하였다. 또 때로는 손님에 요구에 응하여 유흥의 장소에 불려가 흥을 돋우는 역할도 하여 매춘에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창가에는 정이 담긴 아리마라 부르지만 대접이 서투르게 술 따르는 여인  
無着者<sup>37)</sup>

온천장에 유나(湯女), 下女 등이 상주하여 음주의 자리에 불려와 술을 따르기도 하고 가무로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즉 온천장에서는 아리마 부시 등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화를 전수하는 공간으로도

---

34) 三ヶ月の塩湯にうつる影見ればかたわもなをる七日七日に。  
大根土成(1827)『滑稽有馬紀行』(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平凡社、1987.) p7.  
35) あひ思ふ人をおもはぬ病をば何か有馬の湯へも行べき. 주 27과 같은 책. p36.  
36) 小湯女有馬ふしを舞ふ凶 馬ならで客乗たがる娘湯女うつや太鼓にうつつぬかして 土成.  
주 27과 같은 책. p48.  
37) 唱歌にはなさけ有馬と唄へども杓子あたりもわるひ酌人 無着者. 주 27과 같은 책. p48.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온천수가 용출하여 탕치에 효험이 있다는 이즈 온천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돌아와 전해주시길 (包以<sup>38</sup>)

한 달간의 예정으로 이즈로의 탕치 여행을 떠나는 스승에게 제자인 호이(包以)가 온천의 영험함을 체험하고 치유의 효능을 알려주기 바란다는 단가를 읊어 헤어짐의 섭섭함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의 교카, 단가는 온천기행 작품에 삽입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주로 탕치의 주기와 효능, 유나의 존재, 유흥의 장면, 문화 전수의 장면 등을 노래로 설명하고 있다. 또 셴류만큼 온천욕의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온천기행을 비롯한 일본근세문학에 나타난 온천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에도시대 온천의 원점은 고혈압, 안질, 성병 치료, 임신촉진, 우울증 등의 병약한 몸을 치유하기 위한 칠일을 주기로 하는 탕치에 있다. 그러나 온천기행을 비롯한 작품에서는 온천욕에 대한 묘사는 삽화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려지는 하나, 온천에서 이루어지는 탕치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가 극히 일상적인 비속한 것이었으므로 문학의 소재로 취급하기 어려웠던 점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마치 식사를 하는 행위가 문학의 소재로 묘사되기 어려웠던 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온천장은 격리된 별천지로 탕치를 위한 공간이기는 하나, 장기체재를 요하는 것이었으므로 이곳에서는 취미, 오락 등으로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유나, 유랑예능인 등에 의한 유흥과 문화전수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에도시대 후기의 온천여행은 교통로의 발달과 그에 따른 숙박시설 등의 정비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탕치를 위한 시설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기본적인 레저시설을 갖춘 온천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いづの湯のわきてしるのありてふをとくかへりきてかたりませ君. 包以.

原正興(1839)『玉匣两温泉路记』(板坂耀子编『江戸温泉纪行』、平凡社、1987.) p131.

또 온천장은 복수의 탕치 여행자들에 의하여 숙박 체제가 이루어지므로 『조슈쿠사쓰온센도추조쿠히자쿠리게』에 그려지는 야지, 기다 콤비나 『곶케 아리마기행』의 에라이야 다로스케, 사이로쿠 콤비에 의한 기행만담의 소재로도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参考文献】

- 安達清治(2008) 「『旅行用心集』に見る“江戸時代”の旅人と温泉の楽しみ方」  
(『大阪観光大学紀要』8号、)
- 板坂耀子(1987) 『江戸温泉紀行』平凡社.
- 今野信雄(1989) 『江戸の風呂』新潮選書.
- 今野信雄(1986) 『江戸の旅』岩波新書
- 大根土成(1827) 『滑稽有馬紀行』(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 平凡社, 1987)
- 神崎宣武(2004) 『江戸の旅文化』岩波親書
- 木暮金太夫編(2003) 『錦絵にみる日本の温泉』国書刊行会.
- 小池正胤(1996) 『膝栗毛の世界』NHK出版.
- 坂本栄昌(1795) 『旅のくちずさみ』(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 平凡社, 1987.)
- 十返舎一九(1802) 『上州草津温泉道中続膝栗毛』(大橋進一『十返舎一九全集』第1巻、博文館、1930.)
- 原正興(1839) 『玉匣両温泉路記』(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 平凡社, 1987.)
- 万里集九(연도미상) 『梅花無尽蔵』(『続群書類従』第十二輯下, 1927)
- 松田忠徳(2007) 『江戸の温泉学』新潮選書
- 本居大平(1782) 『有馬日記』(板坂耀子編『江戸温泉紀行』, 平凡社, 1987)
- 八隅蘆菴(1810) 『旅行用心集』(『生活の古典双書』八坂書房, 1972)
- 八岩まどか(2002) 『温泉と日本人』青弓社
- 山沢英雄(1986) 『誹風柳多留拾遺』上,下 岩波文庫
- 山沢英雄(1995) 『誹風柳多留』一~四, 岩波文庫
- 박찬기(2010) 「에도시대의 기행문학과 온천문화」(『일본문화학보』제47집, 한국일본문화학회편)

## 要 旨

日本の近世以後、武士政権による封建体制の下で、藩直轄により管理・経営されてきた温泉は各々整備・発展されていく。それにより、温泉の大衆化が行われ、温泉に関する知識及びマニュアルが整備される所謂「温泉文化」が表れる。例えば、温泉番付、錦絵、版画、実用書等があり、文芸として成立された温泉紀行、川柳、狂歌、短歌等も江戸時代の温泉文化を理解するのに役に立つ。

温泉の原点は湯治にある。しかし、温泉紀行を始めとする文芸には、挿絵の描写には部分的に表れるものの、温泉浴の様子を具体的に述べた文はあまり見つからない。それは、おそらく、服を脱いで身体を露出する入湯の行為がごく日常に関する卑俗なことであったから、文学の素材として取り入れにくい点もあったであろう。まるで、食事をする行為が文学の素材として描かれにくかった点とも脈を同じくする。

長い旅の末、辿り着いた温泉は隔離された別天地として描かれ、湯治のための空間ではあるものの、七日間を一まわりとする長期の滞在であったがために、ここでは趣味、娯楽を楽しむこともでき、ましてや湯女、旅芸人等による遊興と文化伝授の場としても活用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つまり、江戸時代後期の温泉は交通路の発達とともに宿泊施設等の整備も行われ、湯治のための施設は勿論のこと、基本的なレジャー施設をも兼ね備えた温泉町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

キーワード：江戸時代の温泉紀行、湯治、湯女、旅芸人、江戸川柳、狂歌  
『上州草津温泉道中続膝栗毛』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